

2011년 6월 28일
기초문화연구전공 종교학종교사학전문분야
박사과정 신자토 요시노부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차세대 인문사회학 육성프로그램에 의한 회의파견
귀국보고

1. 파견생의 기본정보

이름 : 신자토 요시노부
신분 : 인문사회계연구과 기초문화연구전공 종교학종교사학전문분야
박사과정 4학년
파견형태 : 개인파견

2. 연구 주제

한국 샤머니즘, 불교, 기독교에서 보는 조상제사와 사생관의 현대적 변화

3. 현지에서의 활동

(1) 현지의 기본정보

한국, 서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연구실

(2) 체재기간

2011년 4월 11일 출발, 동년 6월 24일 귀국, 체재기간 75일

주요 연구 성과

(1) 연구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무속, 불교, 기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의 현대적인 사생관(死生觀)을 밝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 화장이 급격히 보급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지금 한국에서는 장례의례나 제사에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런 변화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도 요즘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생관을 규정해 온 종교에서 그 변화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연구는 아직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본 연구는 종교 현장에서 직접 종교자나 신도의 사생관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이 점을 채우는 것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서울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 승려, 그리고 신부나

목사가 집행하는 장례의례나 조상제사, 추도예배에서 현장답사를 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현장답사에서는 종교자나 그 신도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들의 조상관이나 사생관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성과

이 연구는 주로 현지 샤먼인 무당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중시한 것은 한국 샤머니즘의 현대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장소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러한 장소로 일반적으로 신촌으로 불리는 곳을 선정하였다. 왜냐 하면 신촌은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서강대학교가 근처에 있는 학생가이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적인 사상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적당한 곳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조사 및 의례에 대한 현지조사는 샤먼 1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들과 긴 시간을 같이 활동함으로써 현대 한국 샤머니즘의 사생관을 파악하기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 성당이나 교회, 그리고 불교 사원에서도 종교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여러 번 실시할 수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종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생의 구체적인 사상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일반 신도들이 언급한 사생에 대한 구술자료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한국 사생관을 크게 규정해 온 유교적 조상제사 및 무속적인 “한” 사상은 서로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3) 향후 전망

이번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사생관의 변화를 역사적 및 비교 지역적인 시점에서 정리하는 논문을 집필할 예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종교 연구에서는 유교와 무속이라는 이중 구조 모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많은 연구자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사생관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 이론은 현대 한국의 사회 및 문화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 때문에 보고자는 이번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현대 한국에서 생기고 있는 변화의 역사적인 근원, 그리고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 나아가서 중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볼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으로써 기존 한국 종교 연구의 모델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논문을 집필할 생각이다.